

이민우 - 장민기 선발 테스트 '절반의 성공'

KIA, 한화와 연습경기 1-4 패
이민우, 제구 능력 테스트
피안타 후 위기관리 능력 보여줘
장민기, 멀티이닝 소화력 점검
삼진 3개 잡고도 2이닝 못채워
'잡은 볼넷' 공동 문제점 노출
KIA, 한화와 4경기 3승 1패

이민우와 장민기가 '첫 실전'에서 기대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겼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연습경기 5차전을 치렀다. 이날 이민우와 장민기가 캠프 첫 실전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경기 전 윌리엄스 감독은 이민우의 선발 등판을 예고하면서 "이민우가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은 커맨드(command, 투수가 원하는 곳에 볼을 던지는 능력)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커맨드가 잘 잡혀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시즌이 진행되고 힘이 떨어지면서 커맨드가 약해졌다"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즌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세밀함을 강조했다.

이어 장민기의 멀티이닝을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은 "(신인선수니까) 이의리와 마찬가지로 편하게 원하는 곳에 던진다는 느낌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며 자신감 있는 피칭을 기대했다.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민우는 첫 타자 임종찬에게 초구에 우전안타는 내줬지만, 노시환과의 승부에서 공 3개로 삼진을 잡았다. 올 시즌 새로운 무기로 기다리고 있는 커브를 스트라이크존에 통과시켜 만든 삼진이었다.

김민하의 3루 땅볼 때 선행 주자를 잡아내면서 2사 1루, 이성열은 2구 승부 끝에 1루 땅볼로 처리했다.

2회 시작은 헛스윙 삼진이었다. 체인지업으로 박정현의 방망이를 헛돌게 한 이민우는 중견수 최정민의 좋은 수비로 이도윤을 플라리로 돌려세웠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쓰리 아웃은 잡았지만 윌리엄스 감독의 요청으로 이민우가 2회 한 타자를 더 상대했다. 결과는 볼넷.

3회 시작도 볼넷이었다. 이어 세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지만, 볼넷 두 개가 아쉬웠다.

또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12명의 타자를 상대해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진 것은 3차례에 그쳤다.

36개의 공을 던진 이민우는 18개의 스트라이크와 18개의 볼을 남겼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투심 등을 시험했고 직구 최고 구속은 142km를 찍었다.

공격적인 초구, 볼넷과의 싸움이 이민우에게 속제로 남겨졌다.

이민우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장민기의 시작은 좋았다.



이민우



장민기

첫 상대 김민하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장민기는 이성열은 우익수 플라이, 박정현은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11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자, 장민기는 윌리엄스 감독의 요청으로 한 타자를 더 상대했다. 이도윤을 상대로 스트라이크 두 개를 연달아 던진 장민기는 3구째 2루 땅볼로 프로에서의 첫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닝은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

다. 장운호에게 초구 스트라이크는 구사했지만, 결과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 이해창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김지수에게 다시 볼넷을 기록했다.

이어 임종찬과의 승부. 최정민이 몸을 날리며 안타성 타구를 잡아주면서 중견수 플라리가 기록됐다. 그리고 장민기의 피칭은 여기에서 종료됐다. 36구를 던졌고 이 중 22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3km, 슬라이더와 포크

볼을 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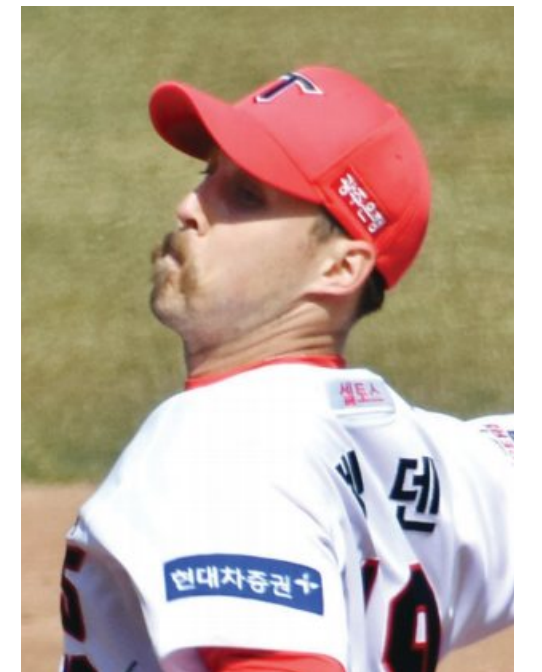
한편 KIA는 이날 연습경기를 끝으로 한화와의 리허설을 3승 1패로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자체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모드에 돌입한 KIA는 9-10일 원정 경기에 이어 13-14일 홈에서 한화와 4차례 만났다. 앞선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던 KIA는 이날 경기에서는 1-4로 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멩덴, 첫 시험

18일 KIA-KT 연습경기 선발
브룩스, 내일 자체경기 등판



KIA 타이거즈의 다니엘 멩덴(사진)이 18일 KBO리그에 첫선을 보인다.

KIA의 새 외국인 투수 멩덴의 첫 등판 일정이 확정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14일 "멩덴은 18일 KT전 선발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3이닝을 소화하며 거의 50개 정도의 공을 던졌다"며 "KT전에는 4이닝 정도 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자체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한화와의 연습경기까지 모두 5경기가 진행됐지만, 아직 멩덴은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시즌 팔꿈치 뺏조각 제거수술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천천히 멩덴의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준비는 잘 이뤄지고 있다.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두 차례 라이브 피칭을 했던 멩덴은 지난 11일에는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다.

노련한 최형우에게 흡린은 맞았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6개 구종(직구,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시험해보면서 컨디션 점검을 마쳤다.

지난 10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2.2이닝을 소화했던 브룩스는 16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두 번째 실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선발 후보' 김현수도 출격한다.

한편 2군에서 선발 준비를 하고 있는 김유신은 지난 13일 상무와의 연습경기에서 3이닝을 소화하는 등 KIA 마운드의 '더블 스위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감 잡았어"

두번째 텍사스 시범경기 등판 2이닝 3K 무실점

백리거에 도전하는 왼손 투수 양현종(33)이 두 번째 시범경기 등판에서 안정감을 뽐내고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양현종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메리칸패밀리필드오브피닉스에서 밀워키 브루어스와 벌인 미국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3-3으로 맞선 5회말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곁들이며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상대로 한 시범경기 데뷔전에서 양현종은 1이닝 동안 공 21개를 던져 홈런 1개 등 안타 2개를 맞고 1점을 줬다.

옛새 만에 출격한 두 번째 등판에서 양현종은 빠른 볼과 변화구 모두 한결 나아진 제구를 선사했다.

양현종은 첫 타자로 맞이한 왼손 타자 개릿 미첼에게 2구째에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재기 브래들리 주니어와 상대한 양현종은 포수 드루 부테라의 멋진 송구로 2루를 훑치려던

미첼을 잡아내 한숨을 돌렸다.

커브 두 개로 브래들리의 눈을 속인 양현종은 3구째 몸쪽에 떨어지는 변화구로 헛스윙 삼진을 낚았다.

양현종은 아비사일 가르시아를 유격수 직선타로 오히리고 공 10개로 1이닝을 막았다.

6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첫 타자 잭 그린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고 나서 밀런 쿨진스, 빌리 매키니 두 왼손 타자를 거푸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아웃카운트 3개를 공 10개로 채웠다.

양현종은 체인지업, 슬라이더 외에도 나차 큰 커브를 이날 섞어 던지며 적응력을 높여갔다.

양현종의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3.00으로 내려갔다.

7이닝 경기에서 양팀은 4-4로 비겼다. 양현종을 제외하고 카일 코디(3이닝 2실점), 지미 허켓(1이닝 1실점), 브렛 더 거스(1이닝 1실점) 등 텍사스 투수들은 모두 점수를 줬다. /연합뉴스

김연경도 못 막은 학폭 후유증

흥국생명, 쌍둥이 논란 후 좌초...GS칼텍스, 여자배구 리그 우승 확정

GS칼텍스가 2020-2021시즌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흥국생명이 시즌 최종전에서 선두 탈환에 실패하면서다.

흥국생명은 지난 1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원정 경기에서 KGC인삼공사에 세트 스코어 0-3(18-25 15-25 16-25)으로 패했다.

정규리그 모든 경기를 소화한 흥국생명의 최종 성적은 19승 11패, 승점 56이다.

20승 9패, 승점 58로 1위를 달리는 GS칼텍스는 오는 16일 팀 시즌 마지막 경기인 대전 KGC인삼공사전 결과와 관계없이 1위를 확정하고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에 직행하게 됐다.

GS칼텍스가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것은 2008-2009시즌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챔피언결정전에서 흥국생명에 밀려 통합우승에는 실패했던 GS칼텍스는 2007-2008시즌,

2013-2014시즌을 이어 구단 역대 3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도전한다.

2017-2018시즌 사령탑에 오른 차상현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의 합류와 국가대표 세터 이다영 영입 등으로 올 시즌 최강팀으로 꼽혔다. 시즌 중반까지 확고히 선두를 달리며 '여우홍'(여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유행어를 현실로 만드는 듯했다.

하지만 선수들의 불화설과 외국인 선수 부상·교체,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징계 등 연이은 악재를 극복하지 못해 정규리그 우승을 놓쳤다.

2위 흥국생명과 3위 IBK기업은행은 오는 20일부터 플레이오프(3전 2승제)에서 맞붙는다. 플레이오프 승자는 오는 26일 GS칼텍스와 챔피언결정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에서 흥국생명 김연경이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